



韩国语

能力考试应试指南

及试题详解(3、4)级

金忠实 编著

◎ 另配录音带两盒

- ✓ 以韩国语能力考试标准为依据
- ✓ 内容全面，覆盖考点
- ✓ 针对性与实用性相结合的强化训练
- ✓ 传授考试的解题要领
- ✓ 权威而经验丰富的作者

 安徽科学技术出版社



A55
12

韩国语能力考试

应试指南及试题详解

(3、4 级)

金忠实 编 著

安徽科学技术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能力考试应试指南及试题详解.(3、4级)/金
忠实编著. —合肥:安徽科学技术出版社,2004.1
ISBN 7-5337-2885-8

I. 韩… II. 金… III. 朝鲜语-水平考试-自学
参考资料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4)第 003133 号

*

安徽科学技术出版社出版
(合肥市跃进路1号新闻出版大厦)

邮政编码:230063

电话号码:(0551)2825419

新华书店经销 合肥晓星印刷厂印刷

*

开本:787×1092 1/16 印张:24 字数:416千

2004年2月第1版 2004年2月第1次印刷

印数:4 000

定价:36.00元

(本书如有倒装、缺页等问题,请向本社发行科调换)

序 言

参加韩国语能力考试，不仅需要掌握课本知识，同时也要了解考试的重点、难点，以及解决问题的技巧和方法。为了帮助读者提高应试能力，我们按照韩国学术振兴财团为外国人举办的韩国语能力考试的3、4级的标准并结合我们多年的教学经验，编写了这本书。它的内容分为语法、词汇、写、阅读和听力等5个部分，概括阐述了各个部分考试要求的内容，收录了练习题，并给出了简单的解释和答案。

我们从中国人学习韩国语的角度出发，采用浅显易懂、地道简练的韩国语编写本书。这样能够使读者在真实的语境中学习韩国语、理解韩国语，从而培养读者用韩国语思维的习惯，切实提高读者的韩国语能力和应试水平。编写时，我们力求质量上乘，内容完备，使读者能够有系统地学习。为了让读者增加实战经验和检查学习情况，书后还附有第6届和第7届韩国语能力考试3、4级全真试题。

在国内现有的韩国语能力考试图书中，本书的编写尚属新的尝试。因此难免有粗糙、疏漏的地方，敬请广大读者批评指正，以便再版时修正。

上海外国语大学东方语言学院的张培德教授审阅了书稿，并提出宝贵的修改意见，在此表示感谢。

上海外国语大学东方语言学院2000届韩国语专业的同学们在课堂实践中提出的许多想法，也给编者许多启示，在此也特意表示感谢。

编 者

차 례 (目 录)

문법부분 (语法部分)	1
1 조사 (助词)	1
1.1 조사의 개념 (助词的概念)	1
1.2 조사의 갈래 (助词的分类)	1
1.3 비슷한 조사의 구별 (近似助词的区别)	4
2 어미 (词尾)	13
2.1 어미의 개념 (词尾的概念)	13
2.2 어미의 갈래 (词尾的分类)	13
2.3 비슷한 어미의 구별 (近似词尾的区别)	49
어휘부분 (词汇部分)	58
1 어휘의 구조 (词汇的结构)	58
2 복합의미 (复合意义)	59
3 비슷한 단어의 구별 (近义词的区别)	62
4 상용어휘 (常用词汇)	76
4.1 상용유의어 (常用近义词)	76
4.2 상용관용어 (常用惯用语)	83
4.3 상용반의어 (常用反义词)	84
쓰기부분 (写作部分)	115
1 글과 표현 (文章和表达)	115
1.1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选词准确)	115
1.2 문장을 올바르게 쓰기 (句子正确)	118
1.3 표현을 적절하게 하기 (表达恰当)	122
2 문단 쓰기 (写段落)	131
2.1 중심 문장 쓰기 (写主题思想)	133
2.2 뒷받침 문장 쓰기 (过渡与照应)	137
2.3 문단 쓰기의 과정 (写段落过程)	142

3 글다듬기 (修改)	149
3.1 단어 수준에서 다듬기 (词语的增删润色)	150
3.2 문장수준에서 다듬기 (句子结构的调整)	154
3.3 글 수준에서 다듬기 (文章主题的完善)	158
 읽기부분 (阅读部分)	 166
1 글의 요소 (文章的要素)	166
2 문단 (段落)	172
3 글의 구성 (文章的结构)	172
4 진술의 방식 (叙述的方式)	172
5 수사 (修辞)	173
6 문체 (文体)	173
7 여러 종류의 글 (各种文体的写作)	173
 듣기부분 (听力部分)	 209
1 주의를 집중하여 듣기 (集中注意力)	209
2 내용을 판단하며 듣기 (判断内容)	209
 [부록1] 한국어 용어풀이 (韩国语用语解释)	 215
[부록2] 제6회 한국어능력시험3, 4급 문제 (第6届韩国语 能力考试3、4级全真试卷)	220
[부록3] 제7회 한국어능력시험3, 4급 문제 (第7届韩国语 能力考试3、4级全真试卷)	298

문법부분 (语法部分)

1 조사 (助词)

1.1 조사의 개념 (助词的概念)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순이 가 영이와 돌이를 학교에서 만났다고 한다.

우리는 돌이에게만 사실을 말해 주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순희가 꽃을 꺾었다^①.

돌이는 커서 변호사^②가 되겠다고 한다.

1.2 조사의 갈래 (助词的分类)

전통문법에서는 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눈다.

격조사

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체언에 붙어 그 말이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곧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격조사에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의 7가지가 있다.

예: 할아버지께서 진지^③를 드신다.

우리 학교에서 응원 상을 받았다.

① 꺾다 [动] 折断 例: 가지를 꺾다 折枝

② 변호사 [名] 律师

③ 진지 [名] 饭(敬语)

너 혼자서 어디로 가니?
 철수가 일찍 학교에 간다.
 저것이 칠판이다.
 영수는 그림책을 샀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
 나의 연필을 주시오.
 영수는 집에 있다
 그것은 부산에서 가져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칼로써 사과를 깎았다.
 배꽃의 회기가 눈과 같다.
 나와 같이 갑시다.
 뽕밭^① 이 바다로 바뀌었다.
 “이리 오너라” 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철수야, 빨리 오너라.

“께서”는 <높임>이고 “에서”는 <단체>이고 “서”는 <인수>를 나타낸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고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종이가”에서 “-가”는 <보격조사>이다. 보격조사는 형태상으로는 보편적 주격조사 “-가/-이”와 차이가 없다. 서술격조사의 부정어인 형용사 “아니다”와 동사 “되다”의 지배를 받는 “-가/-이”가 보격조사이다.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에, 에서, 로, 과, 라고, 고” 등은 <부사격조사>이다.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또한 다의적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집에”의 “-에”는 처소(낙착 점^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류의 조사에는 “-에, -에게, -한테, -께, 더러, 보고” 등이 있다.

“부산에서”에서 “-에서”는 처소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가 붙은 “-에게서, -한테서, -로부터”가 여기에 속한다.

“어디로”의 “-로”는 처소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으)로”와 그것이 붙은 “-에게로, -한테로” 및 “-에”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칼로써”에서 “-로써”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보통 “-로”로 쓰이는 일이 많다.

“눈과”에서 “-과”는 비교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류에는 “처럼,

①뽕밭 [名] 桑田

②낙착 점 [名] 落脚点

만큼, 보다”등이 있다.

“나와”에서 “-와”는 동반^①의 뜻을 표시하는데 접속조사 “-하고, -(이)랑”도 비슷한 기능을 띠고 있다.

“바다로”의 “-로”는 변성의 의미를 띠고 있다.

“라고”는 직접인용의 조사이고 “-고”는 간접인용의 조사이다.

“-야”는 호격조사이다.

ㄱ 접속조사

격조사와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접속조사가 있다.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하고, -이며, -에다, -랑”이 있다.

예: 베틀하고 먹하고 가져오시오.

옷이며, 신이며 죄다^② 흩어져 있었다.

밥에다 떡에다 잔뜩 먹었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ㄴ 보조사

“-만, -도”를 중심으로 조사에는 단순한 자격표시 이외에 특수한 뜻을 더하는 조사가 있다.

예: (1)(ㄱ) 철수는 좋은 아이다.

(ㄴ) 선생님이 철수는 더 사랑하신다.

(ㄷ) 선생님이 철수는 상을 주셨다.

(ㄹ) 철수는 먼저 가라.

(2)(ㄱ) 철수도 좋은 아이다.

(ㄴ) 선생님이 철수도 더 사랑하신다.

(ㄷ) 선생님이 철수도 상을 주셨다.

(ㄹ) 철수도 먼저 가라.

(3)(ㄱ) 철수만 점심을 먹는다.

(ㄴ) 선생님이 철수만 사랑하신다.

(ㄷ) 선생님이 철수만 상을 주셨다.

(ㄹ) 철수만 먼저 가라.

(1)에서(3)은 “-는, -도, -만”과 같은 각각 공통된 의미를 띠고서 여러 가지

①동반 [名] 1)同伴, 結伴 2)伴隨, 帶有

②죄다 [副] 都, 全部 例: 남은 일을 죄다 처리하였다. 剩下的事情都处理完了。

격에 두루 쓰임을 보인 것이다. “는”이 (1)의 (ㄱ)에서는 주격의 자리에, (ㄴ)에서는 목적격의 자리에, (ㄷ)에서는 부사격자리에, (ㄹ)에서는 호격의 자리에 각각 놓여져 있다. “-는”이 표시하는 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대조의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다. (2)와 (3)에 나타나는 “-도”와 “-만”에 대해서도 “는”에서와 같은 격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추출^①되는 의미로 각각 “역시”와 “단독”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며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고 해서 (特殊助詞)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조사에는 이밖에도 “-부터, -까지, -조차, -마다, -(이)나, -(이)든지, -(이)라도, -마저, -(이)나마”등이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단순하지 않다.

1.3 비슷한 조사의 구별 (近似助詞的區別)

ㄱ “-가/-이”와 “-는/-은”의 구별

은/는:▶ 진술의 대상을 두드러지게^② 내세우는 지정의 뜻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진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의 속성, 특성, 법칙, 태도 등으로 된다.

- ▶ 대조 구별의 뜻을 나타낸다.
- ▶ 기지^③의 주어를 나타낸다.
- ▶ 이중 주어의 단순문에서 제일 주어로 쓰인다.
- ▶ 이유의 뜻을 나타낸다.
- ▶ 추리판단의 뜻을 나타낸다.
- ▶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 ▶ 부분적 부정을 나타낸다.

가/이:▶ 진술의 내용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뜻은 없고 다만 그것이 단순히 주어라는 뜻만 나타낸다.

- ▶ 미지의 주어를 나타낸다.
- ▶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는/-은”에도 강조의 뜻이 있으나 “-는/-은”에는 동시에 대조 구별의 뜻도 있는데 반해^④ “-가/-이”에는 오직 순수한 강조라는 뜻만이 있을 뿐이다.

①추출 [名] 提取 例: 약초에서 새로운 약물을 추출하다. 从药草里提取药物。

②두드러지다 [形] 突出 例: 이마가 두드러진 남자. 前额突出的男子。

③기지 [名] 已知

④반하다 [动] 相反

㉠ “-에”와 “-로”의 구별

예: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관련하여 도달점을 나타내는 기능으로부터, 어떤 문장에 표현된 일이나 행동이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문제의 대상을 나타내게 된다. 도달점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기능도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문제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서술의 의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그 행동이 문제되는 공간이나 대상으로 해석된다.

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태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문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로”가 여러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다는 의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론적인 관련에서 비롯한다. “-에”에 비해 “-로”는 보다 광범한 서술어에 대하여 방향이나 원인을 나타낼 수 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거나 문제의 대상이나 범위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는 방향이나 원인보다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위치가 서술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 “-들”과 “-네”의 차이

“-네”도 때로는 복수의 “-들”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네”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근에만 붙어서 쓰이되 그의 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여러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 가족의 전체를 나타낸다.

▶ “편”의 뜻을 나타낸다.

“-네”와 “-들”은 각각 자체의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바뀌 쓸 수 없다. 만일 바뀌 쓰면 뜻이 달라진다.

▶ “-들” : “-들”은 다만 단순한 복수라는 뜻 밖에 없다.

▶ “-네”는 사람의 단수에도 쓰이나 “-들”은 단수에는 쓰이지 못한다.

▶ “-들”은 대부분 대상에 많이 쓰일 수 있으나 “-네”는 오직 사람에게 밖에 쓰이지 못한다.

예: 당신들은 여기에 계십시오.

당신네는 여기에 계십시오.

지원이네는 어디에 사세요?

지원이들은 어디에 사세요?(*)

이 모든 물건들은 다 옛날에 산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 네는 다 옛날에 산 것입니다(*)

ㄱ “-에게”와 “-에”의 구별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 뒤에 연결되고, “-에”는 무생물이나 식물과 같은 무정 명사 뒤에 연결되는 여격표시 또는 처격 표시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에게”가 연결되는 대상은 이보다 더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에게”가 연결되는 대상은 고등동물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에도 사람이면 무조건 “-에게”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인격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을 문제삼을 때에만 “-에게”가 연결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에”가 쓰인다.

예: 동생에게 돈을 주었다.

동생에 돈을 주었다.(*)

사람에 두 종류가 있다.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다.(*)

철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철수에게 대한 조사를 하였다.(*)

철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철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철수에 대하여” 이 말은 철수가 가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이고 “철수에게 대하여” 는 “철수” 라는 개인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을 말한다.

ㄱ “-에게, -한테, -더러, -보고”의 구별

에게: 다른 것과 비교하여 쓰이는 범위가 가장 넓다. 평칭 대상에 쓰이며, 생각하고 생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이나 동물을 부각^①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구어적이라기보다는 문어적이어서 공식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쓰인다.

한테: 평칭 대상에 대하여 “-에게”와 거의 같은 문맥에서 쓰일 수 있다. 구어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친근한 사이나 친근한 대상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식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에게”와 달리 생각하고 생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이나 동물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약하

①부각 [名] 塑像, 浮雕

다.

더러: “-한테”보다 더 구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로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의미론적인 상황이 전제될 때에 쓰인다. 동물에 대해서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 어떤 사실을 단순히 기술만 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없다.

보고: 구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러”와 같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직접 “말”을 하는 경우에만 쓰이는 것도 “-더러”와 같다. 사람 외의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쓰일 수 없다는 점도 같다. 다만,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더러”와 다르다.

예: 동생에게/ 동생한테/ 동생더러/ 동생보고 집에 오라고 하였다.

동생에게/ 동생한테/ 동생더러*/동생보고*/ 돈을 주었다.

동생에게는/ 동생한테는*/ 동생더러는*/동생보고는* 이것이 옳다.

그에게/ 그보고/ 그한테/ 그더러* 말했다.

전화로 동생에게/ 동생한테/동생더러* 동생보고* 날씨가 좋다고 하였다.

ㄷ “-까지, -마저, -조차, -도”의 구별

까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범위의 맨 마지막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부터 객관적인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 어떤 일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 앞에 오는 대상에 미치게 될 때에는 문제의 사물이 현장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

조차: 어떤 일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 앞에 오는 대상에 미침을 나타낸다.

마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 앞에 오는 대상에 미침을 나타낸다. 다른 종류의 사물에는 연장될 수 없다.

도: 주어진 것에 더하여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기본적인 의미 특성으로 한다. 대체로 객관적인 한계를 나타내거나 그 극한[㉠]은 다른 종류의 사물에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예: 그 때 나는 돈까지/ 마저/ 조차/ 도 없었다.

그 집에서는 우리에게 술까지/ 조차/ 마저*/도 대접하였다.

우리는 선생님 댁에서 술까지 / 마저/ 도/ 조차* 마시고 나왔다.

그것은 귀신도/ 조차/ 마저*/까지* 모를 일이다.

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도 / 조차/ 마저* 까지* 없었다.

①극한 [名] 极限



“-마는”과 “-지만”의 차이

-마는: 언제나 유계칭의 뜻으로 쓰이고 “-지만”은 언제나 무계칭의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마는”은 언제나 일정한 계칭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뒤에만 붙기 때문이다.

-지만: 계칭적 뜻이 없는 접속어미로만 쓰이고 따라서 “-마는”은 문장에서 계칭이 통일되어 나타나지만 “-지만”은 이런 제약이 없다.

예: 겨울이다마는 따뜻하다./따뜻하오.(*)

겨울이요마는 따뜻해요./따뜻하다.(*)

겨울입니다마는 따뜻합니다./따뜻하오.(*)

종합연습문제 (综合练习题)

1. 아래의 빈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조사를 고르십시오.

- (1)수진이는 도서관() 가던 발길을 돌려 극장() 향하였다.
 (ㄱ)으로/으로 (ㄴ)에/에 (ㄷ)에/으로 (ㄹ)으로/을
- (2)지연이는 영이 () 생일 선물을 받았다.
 (ㄱ)에게서 (ㄴ)에게 (ㄷ)한테서 (ㄹ)로부터
- (3)우리는 정호() 집을 잘 보고 있으라고 단단히 부탁하였다.
 (ㄱ)에게서 (ㄴ)더러 (ㄷ)보고 (ㄹ)한테
- (4)너무 슬퍼서 눈물() 나오지 않았습니다.
 (ㄱ)마저 (ㄴ)조차 (ㄷ)도 (ㄹ)이나마
- (5)우리는 시장에 가서 사과() 배() 감을 사왔다.
 (ㄱ)과(와) (ㄴ)하고 (ㄷ)랑 (ㄹ)을

2. 아래 <보기>에 있는 말에서 골라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보기> -마저, -인들, -나름, -마다

- (1)이것들 () 잃어버리면 정말로 큰일이다.
 (2)여행을 떠나보면 각 고장() 독특한 인간 살이의 분위기가 있다.
 (3)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4)영이가 아무리 바보() 이것도 모르겠니?

3. 다음 문장에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 (1)너는 이제 오로지 공부할 ()이지 뭐.
 (ㄱ)따름 (ㄴ)뿐 (ㄷ)나름 (ㄹ)조차
- (2)이번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한데다가 시험()쉬워서 잘 보았다.
 (ㄱ)마저 (ㄴ)인들 (ㄷ)조차 (ㄹ)까지

4. 다음 문장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골라 넣으십시오.

- (1)이번에 졸업 못한 사람은 당신()이다 .
 (ㄱ)마다 (ㄴ)밖에 (ㄷ)만큼 (ㄹ)뿐
- (2)돌이는 돌이() 영이는 영이() 할 말이 많았다.
 (ㄱ)만큼 (ㄴ)대로 (ㄷ)마냥 (ㄹ)마저
- (3)그녀에게 명예란 생명() 같은 것이었다.
 (ㄱ)으로 (ㄴ)처럼 (ㄷ)과도 (ㄹ)만큼

(4)그렇게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지금() 시작해야지.

(ㄱ)도 (ㄴ)이라도 (ㄷ)에서야 (ㄹ)마저도

(5)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상상() 못해 봤다.

(ㄱ)마저 (ㄴ)인들 (ㄷ)까지 (ㄹ)조차

5. 다음에서 정확한 문장을 고르십시오.

(1)(ㄱ)그 집은 죽이라도 먹는다.

(ㄴ)나는 무엇이라도 했다.

(ㄷ)시간이 3시간이나마 걸린다.

(ㄹ)더운데 냉커피나마 마시자.

(2)(ㄱ)그는 어제 고향에 출발하였다.

(ㄴ)밤에 우뢰소리에 놀라 꿈에 깨어났다.

(ㄷ)새벽 3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ㄹ)그는 미래에서 산다.

(3)(ㄱ)그것은 귀신까지 모를 일이었다.

(ㄴ)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 마저 없었다.

(ㄷ)우리는 선생님 댁에서 술까지 마셨다.

(ㄹ)너라도 그런 일을 해라.

(4)(ㄱ)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ㄴ)우리는 같은 민족대로 서로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ㄷ)우리는 같은 민족마저 서로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ㄹ)우리는 같은 민족만큼 서로 뭉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ㄱ)나도 너 마냥 예뻐으면 좋겠다.

(ㄴ)나도 너인들 예뻐으면 좋겠다.

(ㄷ)나도 너일망정 예뻐으면 좋겠다.

(ㄹ)나도 너하고 예뻐으면 좋겠다.

(6)(ㄱ)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ㄴ)그 누가 뭐다고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ㄷ)그 누가 뭐니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ㄹ)그 누가 뭐냐고 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7)(ㄱ)부득이 갈 수도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낫습니다.

(ㄴ)부득이 갈 수조차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낫습니다.

(ㄷ)부득이 갈 수밖에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낫습니다.

(ㄹ)부득이 갈 수만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낫습니다.

(8)(ㄱ)장마철이라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처럼 안 가져왔더니 비

가 오네.

(ㄴ)장마철이라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까지 안 가져왔더니 비가 오네.

(ㄷ)장마철이라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따라 안 가져왔더니 비가 오네.

(ㄹ)장마철이라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조차 안 가져왔더니 비가 오네.

(综合练习题) 参考答案

- 1.(1)에서 “향하다”동사 앞에는 명사의 방향성을 보이는 “-으로, -을”이 와야 한다. 이 때 단순한 처소를 가리키는 “-에”는 올 수 없다. [정답] (ㄴ)
(2)에서 (ㄴ)은 여격이며, 나머지는 탈격이다. [정답] (ㄴ)
(3)에서 (ㄱ)은 탈격이며 나머지는 여격이다. [정답] (ㄱ)
(4)에서 (ㄱ), (ㄴ), (ㄷ)은 한계를 보이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비슷하다. (ㄹ)은 약소함을 나타내는 양보적 표현에 쓰인다. [정답] (ㄹ)
(5)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에, 주격“-가”나 대격“-를”은 맨 나중에만 쓰인다. [정답](ㄹ)
- 2.(1)“마저”는 “남김없이 그것까지”의 뜻을 다 가지는 보조사다.
(2)“마다”도 “모두”의 의미를 가지나 대상을 낱낱이 다룬다는 점에서 “마저”와 구별이 된다.
(3)“나름”은 바로 앞에 놓인 명사의 독자성을 마련해 주는데, 보통 그 뒤에 “-의” 또는 “-으로”가 온다.
(4)명사 뒤에 위치하여 양보적 표현을 끌어 내는“-인들”의 뒤에는 부정적 의 문문이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 3.(1)“조차”앞에는 “-을”관형사가 오지 않는다.
(2)(ㄴ)은 그 뒤에 부정적인 표현들이 주로 온다.
- 4.(1)“-마다”는 구체화된 특정 개인에게는 의미상 맞지 않는다. “-밖에”는 서술격조사 앞에 올 수 없는 형태이다. “-만큼”이 서술격 앞에 오는 경우는 분량을 나타 낼 때 정도이다.
(2)“-만큼”은 비교나 한계를, “-마냥”은 비교를, “-마저”는 한계를 나타내므로 위의 문장에 적절하지 못하다.
(3)형용사 “같다”는 그 앞에 “-과/-와”를 취할 수 있다.
(4)미처 이루지 못할 일을 “이제 더 늦기 전에”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이루려면 시간어에“-이라도”를 붙여야 한다.